

한 국 사

문 1. 신라 민정 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람은 연령에 따라 6등급으로 구분하였다.
- ② 5년마다 토지의 변화를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 ③ 호는 상상호에서 하하호까지 9등급으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 ④ 토지와 인구뿐만 아니라 소와 말의 수, 뽕나무·잣나무·호두나무의 수까지 기록하였다.

문 2. 다음 ‘민요’가 나타난 시기의 역사적 사건으로 옳은 것은?

남문을 열고 파루를 치니 계명산천이 밝아온다.
석수장이 거동보소. 방 망치를 갈라 잡고 눈만 꿈벅거린다.
도편수란 놈 거동보소. 먹통 들고 갈팡질팡한다.
우리 나라 좋은 나무, 이 궁궐 짓는 데 다 들어간다.

- ① 정족산성에서 프랑스 군을 격파하였다.
- ② 상평통보를 발행하여 전국적으로 유통시켰다.
- ③ 나라 이름을 조선으로 하고 수도를 한양으로 옮겼다.
- ④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청·일 전쟁을 일으켰다.

문 3.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었던 시대의 신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학박사와 의학박사를 파견하여 지방 세력의 자제를 교육하였다.
- 문헌공도, 홍문공도 등의 사학이 설립되었다.

- ① 중류층인 남반은 중앙 관청의 말단에서 행정 실무를 관장하였다.
- ② 향리 자제들이 과거를 통해 중앙 관리가 되는 길이 열려 있었다.
- ③ 관청의 잡역에 종사한 공역노비는 60세가 되면 역이 면제되었다.
- ④ 향, 부곡의 주민은 군현의 주민에 비해 여러 가지 차별 대우를 받았다.

문 4. 밑줄 친 ‘난’의 주체들이 주장했을 구호로 거리가 먼 것은?

최근 남쪽에서 일어나는 난은 양민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궁민(窮民)이 일으킨다. 이들은 생활할 만한 자산이 없으므로
밤낮 원망하고 난을 생각한 지 오래되었다. 비록 의리를
말하면서 그들을 타일러도 따르지 않는다. 요사이 남쪽
농민들의 소란은 대개 이들이 주동한 것이며 양민은 단지
협조자일 뿐이다.

— 『고환당수초』 —

- ① 잡역세 부과를 반대한다.
- ② 토지는 농민에게 넘겨라.
- ③ 과중한 결세를 해결하라.
- ④ 군포 부담을 고르게 하라.

문 5. 다음은 『삼국사기』에서 신라의 역사를 세 시기로 구분한 것이다.
(가) ~ (다)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박혁거세 진덕여왕→		←선덕왕	경순왕→
(가)	(나)	(다)	

- <보 기> —
- ㄱ. (가) - 황룡사 9층 목탑을 세웠다.
 - ㄴ. (나) - 천체를 관측하기 위해 첨성대를 세웠다.
 - ㄷ. (나) - 감은사지 3층 석탑을 축조하였다.
 - ㄹ. (다) - 봉덕사종이라고도 하는 성덕대왕 신종을 제작하였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ㄷ, ㄹ

문 6. 다음 (가), (나)와 관련하여 나타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 시위대 참령 ○○○이 ... (중략) ... “내가 몇 해 동안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해산을 당하고 말았으니 차마 내 병정들을 대할 면목이 없다.”라고 말하고 차고 있던 군도를 빼어 스스로 목을 찔러 죽으니 병정들이 분기를 이기지 못하였다고 한다.
- (나) 용병(用兵)의 요체는 고립을 피하고 일치단결하는 데 있다. 각 도의 군사를 통일하여 뜻이 무너질 듯 근기(近畿) 지방으로 밀려들어가면 온 천하를 우리 보물로 하기는 불가능하더라도 한국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리하게 될 것이다.

- ① (가) - 의병과 연계하여 일본군과 접전을 벌였다.
- ② (나) - 13도 창의대진소가 설치되고 이인영을 창의대장으로 뽑았다.
- ③ (가) - 고종이 퇴위하고 정미조약이 강요되는 계기가 되었다.
- ④ (나) - 허위가 이끄는 선발 부대는 동대문 인근까지 진출하였다.

문 7. 다음과 같은 민족 운동을 촉발한 일제의 침략 정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국채 1,300만원은 나라의 존망과 관계한다. 값으면 나라가 살고 값지 못하면 망하는 것은 시대의 대세이다. 현재 국고로는 이 국채를 갚기 어려운 즉, 삼천리 강토가 자칫 우리 나라와 백성의 것이 아니 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 ① 화폐 정리 사업과 시정 개선 사업을 강요하였다.
- ② 청국과 간도협약을 맺어 대륙 철도를 부설하였다.
- ③ 제1차 한일협약을 강요하여 경찰교문을 파견하였다.
- ④ 회사령을 공포하고, 일본 물품의 수입 관세를 유지하였다.

문 8. 다음 (가), (나)의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 토지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주소, 씨명, 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사표, 등급, 지적, 결수 등을 임시토지조사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나) 법령 및 조약에 의하여 몰수 또는 국유로 된 토지나 소유권 명의가 분명하지 않은 농지는 정부에 귀속하며, 농지 분배는 1가구당 총 경영 면적 3정보를 초과하지 못한다.

- ① (가) - 토지세 과세지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 ② (나) - 임야 소유권 문제는 제외하였다.
- ③ (가) - 국유지는 동양척식회사 등을 통해 일본인에게 불하되었다.
- ④ (나) - 귀속 농지 분배를 위하여 신한공사를 설치하였다.

문 9. 조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통일 신라는 토지 생산량의 10분의 1 정도를 조세로 수취하였다.
- ② 고려는 토지를 논과 밭으로 구분하고, 비옥한 정도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어 조세를 부과하였다.
- ③ 조선 세종 때에는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6등급으로, 풍흉의 정도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누어 조세를 부과하였다.
- ④ 조선 후기에는 영정법을 시행하면서 지주에게 토지 1결당 미곡 12두의 전세를 부담시켰다.

문 10. 다음 민중 봉기에 대한 내용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ㄱ. 경주와 그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신라 부흥을 외친 농민 봉기가 자주 일어났다.
- ㄴ. 군현에 사자를 보내어 조세를 독촉하자 원종과 애노가 상주에 응거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 ㄷ. 서북지방의 대상인, 향임층, 무사, 농민 등이 연합하여 지방차별 타파를 외치며 봉기하였다.
- ㄹ. 백정 출신이 몰락한 사림, 아전, 평민 등을 규합하여 구월산을 본거지로 의협 활동을 전개하였다.

- ① ㄱ→ㄴ→ㄷ→ㄹ
- ② ㄱ→ㄴ→ㄹ→ㄷ
- ③ ㄴ→ㄱ→ㄷ→ㄹ
- ④ ㄴ→ㄱ→ㄹ→ㄷ

문 11. 다음 호소문을 발표한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현재 나의 유일한 염원은 3천만 동포와 손잡고 통일된 조국을 위하여 공동 분투하는 것이다. 조국이 필요하다면 이 육신을 당장에라도 제단에 바치겠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선에 구차한 안일을 취하여 단독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 ① 조선사편수회에 참가하여 조선사를 편찬하였다.
- ② 의열투쟁을 목적으로 한민애국단을 창단하였다.
- ③ 조선민족전선연맹을 결성해 민족단일전선에 노력하였다.
- ④ 선임정·후신탁 이념을 담은 좌우합작 7원칙에 합의하였다.

문 12. 다음과 같은 주장이 제기된 시기의 사회 현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금의 불교계를 보면 아침 저녁으로 행하는 일들이 비록 부처의 법에 의지하였다고 하나, 자신을 내세우고 이익을 구하는 데 열중하며 세속의 일에 골몰한다. 도덕을 닦지 않고 옷과 밥만 허비하니, 비록 출가하였다고 하나 무슨 덕이 있겠는가? ... (중략) ... 마땅히 명예와 이익을 버리고 산림에 은둔하여 항상 선(禪)을 익히고 지혜를 고르는 데 힘쓰면서 예불하고 경전을 읽으며 힘들여 일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각자 맡은 바 임무에 따라 경영하도록 하자.

- ① 변발, 호복, 조혼 등의 풍습이 유행하였다.
- ② 가묘를 세워서 제사하는 예제가 확산되었다.
- ③ 지방에서는 호족이라 불리는 새로운 세력이 성장하였다.
- ④ 김사미·효심의 봉기를 비롯한 농민과 천민의 봉기가 자주 일어났다.

문 13. 선사시대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동굴이나 바위그늘, 막집 등에서 살았다.
- ② 신석기 시대에는 가락바퀴나 뼈바늘을 이용하여 옷이나 그물을 만들었다.
- ③ 빗살무늬토기보다 앞서 덧무늬토기, 이른 민무늬토기 등을 사용하였다.
- ④ 청동기 시대부터 청동제 농기구를 본격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농경이 더욱 발전하였다.

문 14. 밑줄 친 ‘왕’이 남긴 업적으로 옳은 것은?

영락 9년(399)에 백제가 서약을 어기고 왜와 화통하므로 왕은 남쪽으로 순수해 내려갔다. 신라가 사신을 보내 왕에게 말하기를 “왜인이 국경에 가득 차 성을 부수었으니 왕께 도움을 청합니다.”고 하였다. 영락 10년에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 ① 도움을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겼다.
- ② 불교를 공인하고 태학을 설립하였다.
- ③ 후연을 공격하여 요동을 차지하였다.
- ④ 백제 수도 한성을 함락하고 개로왕을 죽였다.

문 15. 다음의 내용과 가장 관련이 깊은 일제의 정책은?

조선총독부는 옷감을 절약하고 노동력을 쉽게 동원하기 위하여 여성들에게 ‘몸빼’라는 이름의 바지를 입게 하였다. 이 옷은 일본의 농촌 여성들이 주로 입던 작업복으로, 긴 윗옷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허리와 허벅지까지 통이 넓고 바지 아랫단은 좁았다.

- ① 산미 증식을 위하여 보국대를 동원하였다.
- ② 헌병 경찰과 보조원을 전국에 배치하였다.
- ③ 문화 통치를 표방하고 한글 신문을 발간하였다.
- ④ 호남선 철도를 개통하여 농산물 반출을 확대하였다.

문 16. 다음의 토지제도 개혁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閭)에는 여장(閭長)을 두며 여민들이 공동으로 경작한다. 내 땅 네 땅의 구분이 없으며 오직 여장의 명령만 따르며, 개인별 노동량은 매일 여장이 기록하고, 수확물은 모두 여장의 집에서 모은다. 분배할 때는 공세(公稅)와 여장 녹봉을 빼고서 일역부(日役簿) 기록에 따라 공정하게 분배한다.

— 『전론(田論)』 —

- ① 균전제 시행에는 비판적이었다.
- ② 병농일치의 군사제도가 함께 제안되었다.
- ③ 정전제를 이상적 모델로 삼은 개혁론이었다.
- ④ 놀고 먹는 양반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이 담겼다.

문 17. 다음 상소문에 나타난 역사의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군신, 부자, 부부, 붕우, 장유의 윤리는 인간의 본성에 부여된 것으로서 천지를 통하는 만고불변의 이치이고, 위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도(道)에 해당됩니다. 반대로 배, 수레, 군사, 농사, 기계 등 편민이국(便民利國)하는 것은 외형적인 것으로서 기(器)에 해당합니다. 신이 변혁을 꾀하자고 주청드리는 대상은 기이지 도가 아닙니다.

- ① 왜양 일체론을 계승하였다.
- ② 온건 개화파의 현실관을 반영하였다.
- ③ 인물성이론을 사상적 연원으로 삼았다.
- ④ 갑신정변 주도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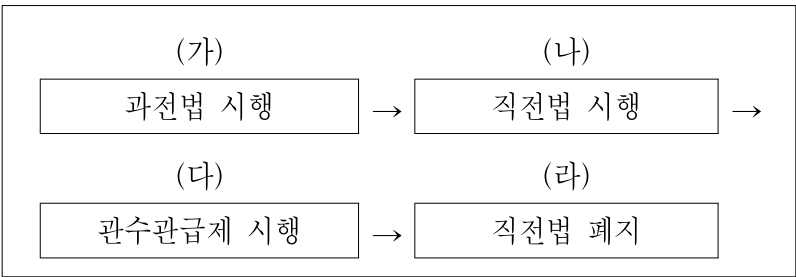
문 18. 다음 제도를 제정한 왕과 관련된 사실로 옳은 것은?

처음으로 역분전(役分田)을 정했다. 통합 때의 조신과 군사에게 관계(官階)를 논하지 않고 인성과 행실의 선악, 공로의 대소를 보고 차등있게 지급하였다.

— 『고려사』 —

- ① 광군을 조직하여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 ② 광덕, 준풍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 ③ 북진정책을 추진하여 서경을 경략하고 압록강까지 영토를 넓혔다.
- ④ 정주 유씨, 충주 유씨 등 유력한 지방 호족들과 정략적 혼인 관계를 맺었다.

문 19. 다음 토지제도의 변천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가)를 계기로 관료의 유가족에게 구분전과 한인전이 지급되었다.
- ② (나)로 인해 수조권 지급 제도가 사라졌다.
- ③ (다)를 계기로 수조권자의 과다한 수취를 막기 위해 국가가 수조를 대행하였다.
- ④ (라)로 인해 자영농의 숫자가 급속히 늘어나게 되었다.

문 20. 다음 글을 집필한 역사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옛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라는 멸망할 수 있지만 역사는 멸망할 수 없다고 하였으니, 나라는 형(形)이고 역사는 신(神)이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의 형은 허물어졌으나 신만이 홀로 남을 수는 없는 것인가.

— ○○○○ 서문 —

○ 무릇 역사는 국가의 정신이요, 영웅은 국가의 원기라. 국민의 수준이 높을수록 역사를 더욱 존중하고 영웅을 숭배하니 그 역사를 존중함과 영웅을 숭배함이 곧 그 국가를 사랑하는 사상이라.

— 고구려 영락대왕 묘비 등본을 읽고 —

- ① 국가의 구성 요소를 국혼과 국백으로 나누었다.
- ② 역사 연구의 목표를 ‘조선 얼’의 유지에 두었다.
- ③ 아와 비아의 투쟁으로 역사가 전개된다고 하였다.
- ④ 기자조선 - 마한 - 통일신라로 이어지는 정통론을 주장하였다.